

한국, 미국, 일본 대학생 소비자의 물질주의와 쾌락적-효용적 쇼핑가치 비교

서 정 희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백 제 화*(울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은 한국의 서울과 울산, 미국의 콜럼버스 및 일본의 나가사키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물질주의의 3개 하위차원과 쾌락적 쇼핑가치와 효용적 쇼핑가치를 비교하고, 물질주의와 쇼핑가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군집분석을 통하여 쇼핑가치를 유형화하고 쇼핑가치유형에 따라 물질주의의 3차원이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미국의 콜럼버스의 대학생 166명, 일본의 나가사키의 대학생 227명, 한국의 서울의 대학생 127명, 울산의 대학생 119명이다.

효용적 쇼핑가치는 4개 조사지역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울산의 학생들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미국과 일본의 학생들이이고, 서울의 학생들이 가장 낮았다. 쾌락적 쇼핑가치는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일본의 학생들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미국과 울산, 서울의 학생들이 가장 낮았다.

물질주의 3개 차원은 모두 조사지역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성공수단 물질주의는 울산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일본과 미국이고 서울이 가장 낮았다. 생활중심 물질주의는 울산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일본이고, 서울과 미국이 가장 낮았다. 행복추구 물질주의는 울산과 일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미국이고 서울이 가장 낮았다.

효용적 쇼핑가치는 쾌락적 쇼핑가치와 모든 지역에서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상관관계의 크기를 보면 울산이 가장 크고, 일본의 두 번째이고, 서울이 세 번째, 미국이 가장 낮았다.

성공수단 물질주의는 일본만 효용적 쇼핑가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쾌락적 쇼핑가치와는 서울과 울산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활중심 물질주의는 일본만 쾌락적 쇼핑가치와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행복추구 물질주의는 일본과 울산만 효용적 쇼핑가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본, 서울과 울산은 쾌락적 쇼핑가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쇼핑가치유형에 따라 물질주의 3개 하위차원은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조사지역에 따라 효용적 쇼핑가치와 쾌락적 쇼핑가치, 물질주의의 3차원의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쇼핑가치와 물질주의의 관계도 쇼핑가치의 차원과 물질주의 차원 및 조사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가치를 유형화한 결과 두 가지 쇼핑가치를 모두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아 소비가치의 양면성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쇼핑가치의 유형에 따라 물질주의의 3개 하위차원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